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431-437  
<https://doi.org/10.29212/mh.2024..132.4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참관기] 2024-1차 국방역사편찬 교육 · 워크숍을 마치고

최정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때인 1951년 1월 15일 국방부 정훈국에 ‘전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한국전란지」 등을 편찬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군사편찬연구소는 국방사·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편찬에 주안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방사, 6·25전쟁사, 한국군사사,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군사』 등 약 900여 권을 발간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군사연구기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 군사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연구·편찬 업무 외에 각종 군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과 관리에도 군내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해외 파병증언록을 비롯하여 각종 군사 사료와 시청각 자료, 특수 자료 등 13만 2,000건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 중 일부는 군사편찬연구소 디지털 군사사료관에서 원문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편찬연구소는 연구·편찬, 군사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기능을 통해 ‘군사 역사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사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군사사 연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의 군사업무 담당자들의 역

량이 이들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시대 변화에 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21년부터 국방대학교(직무 연수원)와 협업하여 ‘군사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23년까지 진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부대(서)의 사관(史官)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국방대학교 교육 운용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군사편찬연구소 단독으로 연 2회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 프로그램을 시행(전반기 6.21., 하반기 11.7. 예정)하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간사를 중심으로 연구·편찬 업무

를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에 의한 양질의 군사사 관련 지식을 전달할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 연구원들이 공간사와 정책서, 교양서를 연구·편찬하면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치를 군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전수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군사역사편찬 교육·워크숍은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군사업무 담당자 모두를 성장시키고 군사사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Ⅱ. 2024-1차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 진행

2024년 1차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은 세 가지 프로그램인 특강, 교육 그리고 토의로 구성하였다. 먼저 특강은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이라는 주제로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선임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미숙 선임연구원은 『국방사』, 『국방부사』, 『국방편년사』, 『국방정책사』 등을 연구·편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였다. 이미숙 선임연구원은 “책의 질은 전적으로 자료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자료수집체계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자료 수집은 ‘man to man’ 식으로 업무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고 접촉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군 기관, 군 생산기관자료, 기록관리기관자료, 정부 기록 관련 기관자료, 인터넷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기록관리와 자료수집 요령



으로 “4하라”인 ‘기록하라’ ‘등록하라’ ‘검색하라’ ‘소통(대면)하라’라는 본인의 비법(know how)을 알려줌으로써 군사업무 실무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과정인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 요령’은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선임연구원이 진행하였다. 최정준 선임연구원은 군사(軍史)의 개념, 국방역사서 편찬 기본원칙 등의 이론 분야와 국방역사서 편찬 절차, 국방역사서 편찬의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실제 업무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론 분야는 군사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워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강의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정준 선임연구원은 군사 역사 편찬의 기본원칙으로 “LOTTA”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논리성(Logicality), 객관성(Objectivity), 사실성(Truth), 적시성(Timeliness), 정확성(Accuracy)으로 군사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간 반드시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국방 정기역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대(부서)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오류 그리고 문제점을 사진 자료를 통해 시각화하여 교육함으로써 군사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도 결국은 ‘글쓰기’라고 말하고 글쓰기를 할 때 범하기 쉬운 유형별 오류 사례들과 교정 방법, 퇴고 절차 등을 교육하고 올바른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사업무담당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덕목과 사고방식,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편찬 방법 강

구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결언을 통해 “역사가는 어떤 사건을 우연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발한 원인을 나열만 해서도 안 된다. 궁극적인 원인을 규명하거나 적어도 그것들의 위계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역사가는 사실의 바다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듯이, 무수한 인과적 전후 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군사 역사 담당자들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과정은 계용호 국방사 부장에 의해 ‘담당관 경험 공유 및 발전방안 토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부대(서)에서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과 합참사 담당자, 육군군사연구소 육군사 담당자,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사 담당자가 자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자료수집, 자료 분류, 자료의 신뢰성 평가 방법, 정기역사 작성의 부담감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계용호 국방사 부장은 군사 역사 담당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상호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여 더욱 양질의 군사사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 Ⅲ. 나오며

2024-1차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은 군사편찬연구소가 처음으로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국방사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경험을 가진 전문 연구원들에 의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 군사업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군사업무 담당자 간 경험담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더욱 교육의 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요소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대부분 인원이 군사업무를 담당한 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경험과 기법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는 교육 담당자로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였다. 또한, 군사업무 담당자 간 경

협치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상호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업무의 난이도보다는 업무 요령의 미숙으로 제출기한이 압박하여 제출했던 사례, 자료의 교차 검증 없이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했던 사례, 상하급 제대 간 의사소통 미흡으로 오해가 발생했던 사례 등 수 많은 시행착오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소감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기회를 더욱 알차고 실재적으로 구성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2024-2차 국방역사편찬 교육·워크숍은 11월 7일(목)에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 교육 때는 외부 전문가 초빙 강연, 한미 역사업무 담당자 워크숍, 국방 정기역사 작성 요령교육 그리고 토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미 역사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 역사 연구·편찬 담당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간 기능과 역할을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나 ‘기록조차 되지 않은 역사’는 잊힌다. 비록 희미할지라도 흐릿한 연필 자국이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도 각급 부대(서)에서 군사 역사를 묵묵히 기록하고 연구·편찬하고 있는 군사업무 담당자들의 전투를 본다.